

최근 들어 아동학대 기사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. 초등생 딸을 쇠사슬로 목을 묶어 테라스에 가두고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는 등의 학대, 의붓엄마에게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갇혀 결국 숨진 초등생... 이 보도들을 접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다. 이와 관련 체벌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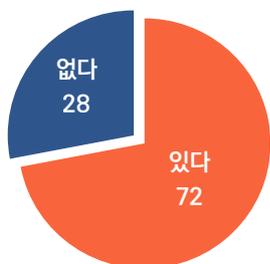
1



체벌하는 한국의 부모, 72%

- 조사 전문 기관 ‘털리언프로’가 부모의 자녀 체벌 경험에 대해 질문했는데, 한국 부모의 72%가 ‘체벌 경험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또한 ‘사랑의 매가 있다고 생각하느냐’는 질문에는 63%가 ‘그렇다’고 응답하였는데, ‘체벌 경험율’ 72%와 비슷한 수준임

[그림] 체벌한 경험(자녀있는 부모 대상) (%)



[그림] ‘사랑의 매’는 있다고 생각한다(전체 응답자 대상)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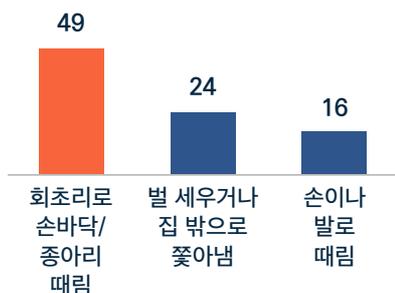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조선일보, ‘체벌... 한 대는 사랑의 매고, 세 대는 학대입니까?’, 2020.06.20. (전국 성인 20~60대 남녀, 총 5044명, 부모는 2648명)
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6/19/2020061903001.htm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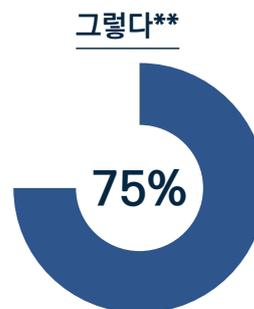
● 체벌 부모, “체벌한 뒤 후회한다” 75%

- 자녀 체벌 방식에 대해서는 ‘회초리로 손바닥/종아리 때림’이 49%로 절반을 차지함. 또한 ‘벌 세우거나 집 밖으로 쫓아냄’ 같은 비신체적 체벌은 24%, ‘손이나 발로 때림’ 같은 폭력적 수준의 체벌은 16%로 나타남
- 자녀를 체벌한 적이 있는 부모 넷 중 셋(75%)은 ‘체벌한 뒤 후회한다’고 응답하여 체벌에 대한 후회 감정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

[그림] 자녀 체벌 방식(상위 3위) (%)



[그림] 체벌한 뒤 후회한다(체벌 경험 부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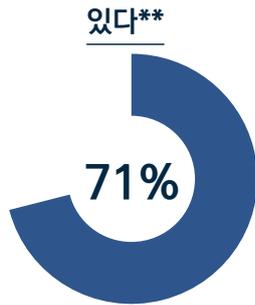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조선일보, ‘체벌... 한 대는 사랑의 매고, 세 대는 학대입니까?’, 2020.06.20. (전국 성인 20~60대 남녀, 총 5044명, 부모는 2648명, 온라인 조사)
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6/19/2020061903001.html

● 어린 시절 체벌, ‘경험 있다’ 71%(현 체벌율 72%와 비슷)

- 어린 시절 체벌 경험은 71%로 나타났는데 공교롭게도 현재 체벌율(72%)과 비슷한 수치를 보임
- 본인이 경험한 체벌 중 학대라고 생각한 체벌에 대해서는 ‘손이나 발로 때리기’를 56%로 가장 많이 꼽았고, ‘회초리가 아닌 도구로 손바닥, 종아리 때리기’ 38%, ‘벌 세우기’35%, ‘회초리 손바닥/종아리 때리기’ 33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[그림] 어린 시절 체벌 경험 (%)



[그림] 본인이 받은 체벌 중 학대라고 느낀 것(중복 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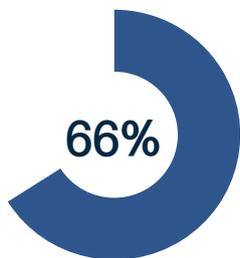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 조선일보, ‘체벌... 한 대는 사랑의 매고, 세 대는 학대입니까?’, 2020.06.20. (전국 성인 20~60대 남녀, 총 5,044명, 부모는 2,648명, 온라인 조사)
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6/19/2020061903001.html

● 체벌, ‘내 자녀 훈육에 효과 있다’ 66%, ‘자신의 어린 시절 체벌이 훈육 효과 있었다’ 35%

- 체벌의 훈육 효과에 대해서는 ‘자녀 훈육에 효과 있다’ 66%,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 체벌 경험에 있어서는 ‘훈육에 효과 있었다’ 35%로 두 응답 간에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, 이는 자신이 받은 체벌은 효과가 없었지만 자신이 하는 체벌은 효과가 있다는 상반된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

[그림] 체벌의 훈육 효과

자녀 훈육에 효과 있었다



본인 어린 시절 체벌이 훈육에 효과 있었다



*자료 출처 : 조선일보, ‘체벌... 한 대는 사랑의 매고, 세 대는 학대입니까?’, 2020.06.20. (전국 성인 20~60대 남녀, 총 5,044명, 부모는 2,648명, 온라인 조사)
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6/19/2020061903001.html